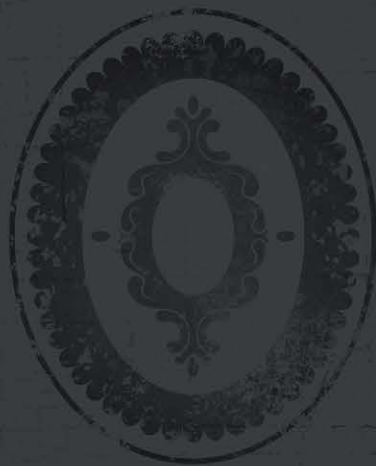


Epilogue File



반드시 게임 종료 후 여십시오.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를 포함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해답편

“사모님이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였겠죠. 그리고 사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왜 날 의심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종인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장기간에 걸쳐 식단을 바꾸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기다린다. 이런 살의이긴 하지만, 살인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에도가와 란포는... 아,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란포가 이런 종류의 행동을 “프로버빌리티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확실하게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확률에 기대는 거죠. 란포는 이 프로버빌리티 살인이라는 것을 ‘범인은 조금도 죄를 추궁당하지 않는 교활한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식하구만.”

“뭘 이쪽 한정이지만요. 하여간 사장님이 범인이라 치고, 확률에 기대는 소심한 방식으로 살해를 도모한 후에, 그 확률을 100%로 만들기 위해 캐리어에 가둔 다음 냉동차에 싣게 만들었다. 이 가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정반대의 두 가지 살의가 섞여있습니다.”

“살의가 두 가지니까, 사람도 두 명이다?”

종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게다가 결정적인 살해 방법도 두 가지였죠. 알레르기로 뒤틀수가 부어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마도 둔기에 의한 외상이었겠죠. 둔기로 머리를 치는 확실한 방법을 쓸 거면 굳이 알레르기 따위에 긴 시간을 소모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지요.”

“게다가 사장님을 의심하기엔 수범이 너무... 너무...”

“너무 뭐?”

“낭만...아니, 고전적이었습니다. 마치 20세기의 탐정소설들에 나온 범죄들을 모아놓은 것처럼요. 밀실살인, 오디오 트릭, 게다가 스마트폰을 바꿔치는 수범은 고전적인 1인 2역 트릭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지만요.”

“스마트폰을 바꿔줬다?”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하죠. 긴 녹음파일을 틀어두었다가 블루투스 리모콘을 사용해 음소거를 시키는 오디오 트릭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블루투스 연결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는 블루투스의 유효 범위 안에 있을 것. 일단 두 번째 조건만으로 이미 두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박인권과 주광일이죠.”

“과연 그렇군.”

“사실 저는 이 단계에서 이미 박인권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이걸 정확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해 수범에서 떠오르는 인격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살해 대상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살해 방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살인. 고전적인 트릭만을 고집하는 이상한 살인. 그렇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 역시 어딘가에 그런 본성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확증할 근거는 찾았나?”

“네. 일단 살해 장소, 아니 적어도 시체 은닉을 실행한 장소는 냉동창고였을 겁니다. 바닥에 흩어진 고깃덩어리들과 아이스팩은 캐리어에서 꺼낸 것들이겠죠. 이걸 제가 직접 캐리어에 넣은 물건들이라서 아는 것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냉동창고 바닥에 아이스팩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스팩은 냉동이 안 되는 공간에서 필요한 물건이죠. 범인이 냉동창고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냉동창고를 열 수 있었던 인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

“네. 하나는 접니다만, 저는 이미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으니 넘어가죠. 두 번째 열쇠는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죠. 경비실에서 발견된 게 그 열쇠 일 겁니다.”

“그러면 주광일을 의심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가장 의심스러운 건 주광일이 됩니다만... 문제는 그 열쇠를 언제 얻었느냐입니다. 저는 그 시점이 사모님의 사후. 정확히는 사모님이 캐리어에 들어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

“열쇠는 아무래도 캐리어 바퀴에 붙어서 딸려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모님 사후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 이전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불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건 이후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아무 증거도 안되죠. 그 열쇠는 사모님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자네를 제외하곤 누구도 열 수 없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종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본인 말입니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범행 장소로 가서, 직접 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순이 없어요. 이것도 쓸데없이 고전적인 수범이긴 합니다만... 사모님에게 신임을 받는 박인권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냉동창고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런 핑계를 댈겠죠.”

“그것도 역시 확증의 근거는 안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확증의 조각은 되겠죠.”

“조각이 더 있다는 말인가?”

“스마트폰 이야기로 돌아가죠. 블루투스에는 U7 한대만 연결되어 있었죠?”

“박인권이 U7을 쓰니까 그게 박인권의 스마트폰이다? 그건 좀...”

종인이 쫓,하고 혀를 찼다. 어찌 점점 표정이 거만해지는 느낌이다.

“아닙니다. 블루투스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사모님의 두 번째 스마트폰이었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모님의 스마트폰은 분명히 범행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은 당시 범행이 불가능했던 사람의 손에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탐정소설에서는 이 문제를 1인 2역으로 해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1기 2역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사장님 손에 들어간 U7은 사모님의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U7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가, 나도 트릭에 이용된 셈인가.”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권과 약속한 계획, 사장님 손의 U7, 주광일이 운반한 캐리어. 하지만 누구도 이 열쇠를 진실의 상자에 가져다대지 못했죠. 그 열쇠들은 우리의 발휘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하니까요. 인권은 우리들의 어둠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종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계속 이었다.

“뭘, 사실 애초에 사모님이 남긴 다잉 메시지를 좀더 빨리 눈치 챘다면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었겠지만요.”

“다잉 메세지라고? 그런 게 있었나?”

놀란 내 말에 종인은 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뭘 이런 몰상식한 게 다 있어?’라는 표정이다.

“돼지고기요, 피그잖아요? P.I.G.”